

한라포커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어떻게 (하) 법정보호종 소음 피해

# 정부-전문기관 남방큰돌고래 피해 '이견'

국토부 "데이터 예측 결과 소음영향 크지 않을 것" 수산과학원 '이·착륙 소음으로 회피 가능성' 제기 전문가 우려한 맹꽂이 경우 국토부 "포획해 이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으로 인해 법정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와 맹꽂이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남방큰돌고래의 수중 소음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꽂이는 포획·이주를 통해 종 보존 및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반례 사유로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꽂이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서식 확장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6일 공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에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면 상의 경우 항공기 이륙할 주 시작점 또는 착륙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6.20km 이내 (비행고도 409m 이하)에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항공기소음 예측기반 데이터를 통한 예측 결과 남방큰돌고래의 수

중 소음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맹꽂이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맹꽂이 등 양서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포획·이주를 통해 종 보존 및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서 "계획지구 인근에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다수의 조류와 남방큰돌고래 등이 서식한다"며 이중 남방큰돌고래와 관련해서는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으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일원에 멸종위기 맹꽂이 서식지가 산재해 사업 진행에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국토부보다 전문가에 의뢰해 비행경로 인근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영향 및 평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업대상지에 맹꽂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서식지 유형을 고려한 과학적 산정 방법을 적용해 개체밀도를 산출하고 서식 추정 개체가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0일 금요일 음 2월 19일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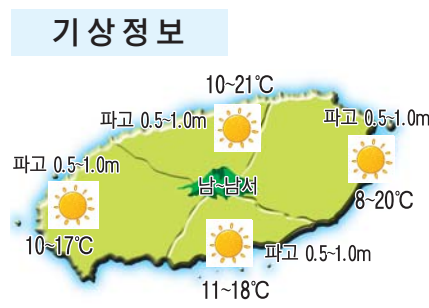


Table with 3 columns: 오전 (0% 강수 확률), 제주 (0% 강수 확률), 오후 (0% 강수 확률). Rows include 성산, 고산, 서귀포.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 많음 11/20°C
모레 흐리고 비 13/16°C

### 전통시장 감시다!!

Table of traditional market names and their respective counts for various categories like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etc.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8-11°C, 낮 최고 기온은 17-21°C로 전망된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C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06:52), 달뜨기 (21:14), 해질 (18:37), 달지기 (08:14).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Table of traditional market names and their respective counts for various categories like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etc.

### 주말 최고기온 20°C

주말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2°C, 낮 최고 기온은 17-20°C로 평년보다 4-5°C 높을 것이라고 9일 예보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다만 곳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C 이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여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대기가 건조해 화재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 습격. 미세먼지 나뭇잎을 보인 9일 제주시 하귀해안도로 주변 유채꽃 너머로 건물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강희만기자

### 제주 지난 겨울 기온 역대급 '널뛰기'

기상청 기후특성 분석결과 1월 한달 기온 변동폭 18.6°C

지난 겨울 제주지역의 기온 변동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겨울철 제주도 기후 특성 분석 결과 지난 겨울(2022년 12월~2023년 2월)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7.2°C, 평균 최고기온은 10.4°C, 평균 최저기온은 4.2°C로 모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로 받으며 기온이 오르는 추세였으며 기상청은 초겨울(12월)이 늦겨울(이듬해 2월)보다 추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제목 제주기상청장은 "지난 겨울 제주도는 기온 변동성이 큰 가운데 초겨울에는 폭설, 1월에는 때이던 호우가 발생해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위험기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상기후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 "아이들 꿈 찾도록 진로교육센터 내실"

제주시교육청 올해부터 직영 전환해 지원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제주시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진로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9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진로센터는 2015년 설치돼 그동안 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직영 전환은 학교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목적

으로 이뤄졌다.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맞춰 진로교육팀을 별도 신설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진로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진로교육지

원단, 진로전담교사 협의체, 제주시 진로체험지원단도 가동한다. 찾아가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보급, 찾아가는 메가 드림(Mega Dream)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진로 탐색 시기의 학생이나 진로미결정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융합 독서토론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진선희기자

Advertisement for '사랑으로 지은 집' (Home built with love) featuring a logo and text: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Large advertisement for '당 축 선' (Congratulations) for the Jeju Agricultural Cooperative 16th Chairman Election. It features a photo of Goo Bong-ju and text: '제주시농협 제16대 조합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발강키위연구회 회장 고관식 외 회원 일동'.